

"회사로비를 갤러리로 꾸몄죠"...청바지 유명 브랜드 '잇진'^[LA중앙일보]

직원들에게 마음의 여유 주고 싶어 시도
내달 중순까지 유명작가 10명 작품 전시

기사입력: 09.24.09 21:53



'잇진' 갤러리에서 아티스트들이 개관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오른쪽 두번째가 잇진의 디자이너인 아티스트 데이빗 장. 오른쪽에 그의 설치미술품이 전시됐다.



키미 송 대표

프리미엄 청바지 업계의 유명 브랜드 '잇진'(Lit Jean: 대표 키미 송)이 로비를 갤러리로 활용 화제가 되고 있다.

잇진 갤러리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이곳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아티스트 데이빗 장을 포함 바버러 네이션슨 크리스틴 위어 애니트라 메닝 줄리 데이튼 폴 제이 와이사드 고든 매그닌 마르시 코프만 메이 시안 퀴우 등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작가 10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 '디버전트 뷰스'(Divergent Views)는 말하자면 잇진 갤러리의 개관전인 셈

재활용품을 이용 근사한 설치미술을 제작하고 있는 데이빗 장의 캔뚜껑을 이용한 인스탈레이션 작품을 포함 페인팅 사진 작품 등 다양한 작품 30여점이 선보이고 있어 건물 전체를 버라이어티한 감각으로 치장해 준다.

지난해 다운타운에서 버논으로 이전한 '잇진'은 갤러리가 아니더라도 업계에선 세련된 감각의 실내 분위기로 유명하다. 안티 작품을 설치해 놓은 듯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뉴욕의 트렌디한 레스토랑을 옮겨놓은 듯한 직원 전용 식당 모던한 감각의 미팅 룸 등 건물의 구석구석이 마치 예술가의 스튜디오 컴플렉스인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일반 화랑이 무색할 정도로 사방이 확 뚫린 넓은 공간의 로비는 갤러리로 전용되기 전부터 미술 작품 여러 점이 전시돼 있어 비즈니스차 잇진을 방문했던 거래처 사람들이 갤러리에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착각했을 정도.

잇진의 이런 감각은 '아름다워야 기쁠 수 있고 기뻐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대표 키미 송의 독특한 삶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인으로서 남다른 감각을 추구했을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연극인 화가 등과 어울리며 예술과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송 대표는 이렇듯 예적인 자신의 취향을 사업에 조화시키게 된 것이다.

장소가 협소했을 때는 꿈을 꾸지 못했으나 지난해 넓은 장소로 회사를 옮기며 '이곳에서 일하는 시간 만큼은 직원들이 충만한 기쁨을 느끼도록 꾸미자'고 다짐했다. 마침 직원 중에 아티스트가 있어 쉽게 그의 설치 미술작품을 전시하게 됐고 로비는 자연스럽게 미술이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됐다.

직원들은 물론 로비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두 '갤러리 해도 되겠네요'라고 말해 그의 로비 갤러리 구상에 힘을 줬다. 그리고 정말 이 공간은 그의 꿈대로 갤러리가 된 것.

"예술은 사람들 마음에 여유를 주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물론 저희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과 거래인들이 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기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램은 없습니다."

키미 송 대표는 10월 중순까지 열리게 될 이번 전시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화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열 구상이다.

- 잇진은 어떤 회사?

1999년 창설, 프리미엄 진 업계에서 '편안한 착용감에 쿨한 디자인'으로 정상급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입는 청바지 중에서 가장 편한 진'이라고 추천하면서 놀라운 판매 신장을 기록했다. 잇진은 '바로 이것', '최고'라는 뜻의 'it'을 표현, '누구나 갖고 싶은, 누구나 원하는 스타일'의 '잇 스타일' 제조를 비즈니스 철학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브랫 핏이 즐겨입는 프리미엄 진 캐슬(Kasil Jean)도 합병, 더욱 큰 규모로 성장했다. 이외에 키미 송 대표는 자선사업의 모체로 사용하기 위해 패서디나에 한식 퓨전 레스토랑인 '참 코리안 비스트로'를 운영하고 있다.

유이나 기자